마인계터 거리에 조성될 마인계터 광장

콩나물 골목에 들어서는 콩나물 전문 식당

‘걷고 싶은 목포’ 명품 테마거리 3곳 만든다

김우진 거리·자드락 골목길·구름다리 길 관광루트로 조성

포토존·무지개 꽃길·프리마켓 등 예술문화관광도시 육성

‘걷고 싶은 목포’를 슬로건으로 내건 목포시의 명품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9억11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3개월에 걸쳐 김우진거리, 구름다리거리, 자드락골목길 등 3개소의 테마거리 조성에 들어간다.

이번 관광루트 조성은 목포 고유 자원의 통합과 연계를 통한 독창적인 루트를 개발하고 목포만의 색채를 담아내 역사문화관광 중심지로 만든다는 게 기본 구상이다.

김우진 거리는 화신약국에서 조각공원까지 코스로, ‘한국 문단의 선구적 극작가 김우진을 이야기한다’는 주제로 꾸며진다.

김우진(1897~1926)은 1913년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를 수료한 뒤 일본 유학을 거쳐 목포로 다시 귀향해 희곡 창작과 문학·연극운동에 주력한 인물이다.

목포시는 화산약국 포토 존에는 영화 ‘클래식’을 테마로 한 포토 존이 조성되고, 김우진 벽화 존에는 김우진의 작품세계와 삶을 보여주는 벽화길이 들어선다.

또 김우진의 문학을 테마로 한 김우진 문학정원과 시민의 참여로 목포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문화예술인을 알리는 공간이 함께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총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구름다리 길(남교소극장~달성사간)은 ‘거리에 색을 입히다’는 테마 아래 목포만의 색(Color)을 테마로 한 거리공간으로, 거리와 관련된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중심부에 위치한 구름다리를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구름다리 길에 조성될 무지개다리

원진극장은 7080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콘텐츠가 도입돼 극장 벽면이 수퍼그래픽으로 제작되고 동선과 거리의 경관 포인트를 고려한 바닥 디자인이 적용된다.

또 핵심 공간인 구름다리가 무지개 색으로 꾸며지고 무지개 꽃길이 조성되며 이매방과 차범석 조형 벽화가 설치된다. 이어 이매방 등 예능의 산실이었던 기생 권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부활시키는 작업과 김대중 대통령의 신혼집을 테마로 한 공원도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3억2200만원이 소요된다.

자드락 골목길은 주민의 생활동선인 골목길을 활용한 목포의 생활상과 이야기가 담겨있는 골목길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달성동 벽화마을, 콩나물 골목, 로데오 광장 등 3곳에 조성된다.

콩나물 골목에는 ‘오선지 위에 목포가 있고 콩나물 동네가 있고 노래가 있다’는 컨셉 아래 사라져가는 목원동의 생활문화자원을 되살리는 것이 목표다. 구종명비의 스토리를 담아낸 정원과 벽화가 조성되고 콩나물을 재배하는 체험장을 비롯한 판매장, 콩나물 특화 식당이 들어서고 주변에 콩나물 조형물과 조형벽화 등이 설치된다.

또 로데오 광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무한도전·태양의 후예 등 한류 콘텐츠를 주제로 포토 존이 조성된다. 여기에 빛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예품을 판매하는 프리마켓도 운영된다. 이 사업에는 가장 많은 3억4900만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만인계터 거리와 목마르뜨 거리 조성공사는 지난 9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함께 독특한 도시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관광루트 조성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해 목포시가 예술문화 관광도시로 부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금고, 기업은행·농협 선정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목포시 금고를 운영하게 될 금융기관으로 기업은행과 농협이 각각 선정됐다.

목포시는 “지난 12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총 평점에서 기업은행이 1위를 차지했고 2순위 농협, 3순위 광주은행이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6000억 규모의 예산 대비 일반회계와 일반기금 등 70%를 관리하는 제1금고에는 기업은행이, 특별회계 2곳과 기타기금 등 30%를 책임지는 제2금고에는 농협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목포시 금고는 3개 금융기관이 운영해 왔으나 정부가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을 공개 경쟁체제로 변경함에 따라 2개로 줄어들게 돼 광주은행은 탈락하게 됐다.

한편 지난 12일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총 평점을 심의위원장이 의결해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은 11월 중 1·2금고를 지정 공표하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이틀간 의료관광 팸투어 실시

목포시는 국제 세계녹색기후 기구(INGO-WGCA)가 주최한 ‘제1회 세계녹색 의료건강문화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참석자들을 초청, 지난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팸 투어를 실시했다. 〈사진〉

목포시는 앞서 지난 11일 세계 정부·기관·의료 및 녹색관련 기업인, 언론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빛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1회 세계녹색 의료건강문화포럼에 참가해 목포시 홍보 동영상을 상영했다.

목포시는 이어 13일에는 중국 공산당 교수, 기업인, 여행사대표, 언론인 등 50여명을 초청해 상동에 위치한 샹그리아 비치 호텔에서 의료·관광 투자 설명회 개최하고 14일에는 목포시 관내 주요 관광지와 요트마리너 시설을 둘러본 뒤 하당 백련로의 의료시설 등을 견학했다.

조건형 목포시 관광과장은 “이번 팸투어는 목포시 하당 백련로의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돼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지역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목포 의료관광 협동조합이 창립됐다.

한편 하당 백년로 1.6㎞거리 내에 목포 기독병원, 동신대 한방병원, 한사랑병원 등 병원급 이상 4곳, 피부과 2곳, 성형외과 2곳, 이비인후과 2곳, 한방 7곳, 치과 8곳, 안과 3곳 등 44개의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시내버스 승강장 이달말까지 대대적 정비

목포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시설물 등을 대대적으로 교체한다.

그동안 버스 승강장 내 설치된 관광명소 사진이 훼손되거나 탈색돼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이달 들어 전 승강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승강장 내 관광명소 훼손·탈색 사진 교체 작업을 벌인다.

현재 관내 버스 승강장은 방풍식 244개소, 정주식 187개소, 유개식 63개소 등총 494개소로, 정비 대상은 방풍식 승강장 51개소다.

시는 관광명소 이미지 사진을 지역 특성에 맞게 부착하고 노후화된 이미지 사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사업비 6000만원을 들여 버스 승강장 내 설치된 의자 보수 6곳, 승강장 철거 18곳, 승강장 이설 5곳, 유리파손 교체 3곳, 이정표 정비 169곳, 노선도 정비 494곳 등 모두 713건에 달하는 승강장 보수를 실시했다.

시는 또 지난 8월 2차 추경 예산안에 1000만원을 반영해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장애인 배려마크 표시를 부착하는 사업도 펼친다.

김철준 목포시 교통행정과장은 “목포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 승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게 됐다”면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승강장 보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도시건설국 내년부터 시민 봉사의 날 운영

목포시가 도시건설 분야와 관련된 민원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찾아가는 시민 봉사의 날’을 운영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는 16일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쟁점 민원을 선정해 도시건설국 직원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시민 봉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봉사의 날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국 산하 7개 과 직원 3분의 1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주요 활동 분야는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관리를 비롯한 건축 공사장 주변 정비, 노상적치물과 불법 광고물 단속, 교통질서 지도 단속, 공원 제초 작업 등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